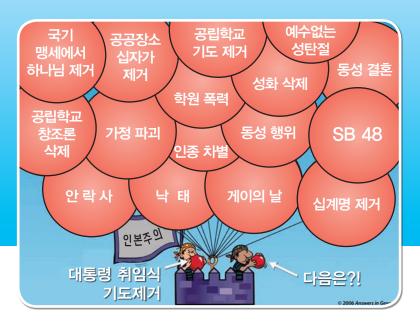
CREATION TRUTH



캘리포니아 SB48 폐지 운동

캘리모니아 교계는 또 다시 동성결혼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2000년과 2008년 주민 선거로 동성결혼이 불법화 되었지만 아직도 여러 모양의 동성결혼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09년 11월에는 게이 운동가 추모의 날(Harvey Milk Day)이 법제화 되었고, 올 해 7월 14일에는 학교에서 동성결혼이 정상적인 생활 양식이라고 가르치도록 하는 SB48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Jerry Brown)가 서명을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캘리포니아 교계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SB48 법은 FAIR Act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공평하고(Fair), 책임감 있고 (Accountable), 포괄적이고(Inclusive), 존경할만한(Respectful) 교육법안(Education Act)"라는 머리글을 딴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인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자들의 삶을 다 포용하는 것이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교육해야 된다는 법이다.

이 법은 바로 내년 (2012년)부터 시행되도 록 되어 있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교과서를 바꾸고 교육 방침과 교육 시스템을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과서에서 비

정상적인 결혼 형태를 긍정적인 것으로 수록 해야 한다. 심지어는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바람직하고, 호감 있는 멋진 삶의 형태라고 가르쳐야 한다.

이런 이유로 법안을 폐지하려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한인 교계도 한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오는 9월 중순까지 65만 명의 청원서를 접수 하여야 이 폐지 안건을 주민투표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교회협의회와 목사회 그리고 기독교 신문과 방송들도 동참하여 1만 5천명의 한인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으려고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있다. 기대에 넘치는 수의 청원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런 생산적이지 못하고 방어적인 일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심히 답답하고 무거움을 숨길 수가 없다. 언제까지 이런 류의 법안에 일일이 대응만 해야 할까? 좀 더 근본적인 처방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동성결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부추기거나 허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더 급한 일은 교회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교회에서마저 동성결혼 심지어는 동성결혼자의 목사 안수를 허용하고 있는 형편에서 사회를 바꾸려는 시도는 정말로 힘겨운 싸움이 아닐 수 없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은 못하더라도 100% 동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왜 크리스천들 중에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 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무지일 것이다.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수 많은 크리스천들은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설명하 지 못한다. 결국 수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신을 수 많은 동물 종들 중에 하나라고 여기며 살고 있 다. 이 진화론적인 생각은 규범이 사라져 내게 좋은 것이 좋다는 포스토모던과 실존주의 시대에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되고 있다.

왜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것이 동성결혼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진

화론자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학자들 중에 진화론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사람이 동물들 중에 하나고 동물들을 잘 관찰해 보면 거의 모든 동물들이 동성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포유류는 그 행위가 더욱 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포유 동물인 사람도 동성결혼을 하는 것이 부자연스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결국 동성결혼의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동성결혼의 문제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교회 안에 들어 와 있는 반성경적인 진화론을 척결하고 사람은 성경에 기록 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임을 확인 해야 한다. 사실 이 하나님의 형상 확인은 동성결혼 문제뿐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답이기도하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연 23:7).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은 성경에서 떠나있다. 지난 2010년 10월7일자 USA Today는 미국의 크리스천들 중에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25% 정도뿐이

라고 보고를 하였다. 거의 대다수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 해석을 하게 하는 근저에는 학교와 미디어에서 배운 수백만 년의 진화론적인 지식이 있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사탄의 속임수다. 에덴 동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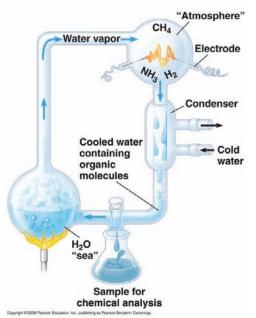


서 "참으로?"라는 질문으로 인류를 도전했던 사탄은 과학 만능시대인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는데 지금은 소위 과학적인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하고 있다. 고생대—중생대—신생대의 지질시대,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 빅뱅 가설에 의한 연대 등 진실을 교묘히 감춘 거짓말로 성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불어 넣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속아 넘어 간 크리스천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제 오히려 성경을 공격하게 되었다.

동성결혼 옹호론자들은 간단하게 행정절차로 법을 만들면 교회는 엄청난 시간과 물질을 들여 거기에 대항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우선 이번 SB48 폐지 운동이 성공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교회가 먼저 성경으로 돌아 오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거짓 과학인 진화론은 넘어야 할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 거짓의 문제를 극복하고 성경 위에 선건강한 교회들이 불쑥불쑥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최우성 박사/ 창조과학선교회

교과서에 들어있는 진화론(6)



왜 화학교과서가 아니라 생물교과서에 실린 걸까?

밀러의 실험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는 '세포' 다. 세포를 단순하게 여기기 쉬우나, 하나 의 세포는 마치 거대한 도시만큼이나 복 잡하다. 세포들은 단백질로 이루어지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란 물질로 이루어진 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이루어지려면 기 본적으로 아미노산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1953년 미국의 시카고 대학 박사과정 학생인 밀러와 그의 교수였던 유레이는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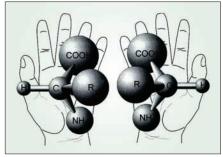
과 같은 장치를 만들어서 수소, 메탄, 암모니아와 수증기를 혼합한 기체를 6일 동안 고압전기로 방전시켜 합성된 유기화합물 을 빠르게 냉각시켰다. 그리고 곧 아미노산 중 몇 가지를 얻어냈다 (그림). 그리고 이들은 이 아미노산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능을 가진 더 복잡한 단백질들로 변할 것으로 믿었다. 이 실험은 과학계에 큰 동요를 일으켰으며, 곧 각 교과서에 생명의 기원에 대한 첫 단계인 무생물에서 생물로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는 실험으로 실리게 되었다. 과연 이것이 생명에 관련된 실험이었을까요?

선택한 재료에 문제가 있다.

여기서 사용된 혼합기체는 생명체에게 필요한 산소가 빠져 있다. 왜 그랬을까? 이는 밀러 자신도 산소를 넣을 경우 산화로 인해 원하는 물질이 파괴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합성이 가능하도록 인위적으로(자연적의 반대!) 재료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지구상의 암석들은 지구 대기가 과거에 항상 산소를 가졌음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메탄의 경우는 어떤 퇴적물에도 검출된 적이 없다. 실제로 메탄이나 암모니아는 지구상에 대량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기체들이다. 결국 선택된 재료들이 과거의 증거와 맞지 않는 것들이었다. 즉 실험 결과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되는 기체는 제거하고, 아미노산 합성에 필요한 기체만 인위적으로 모은 것이다. 자연상태에서는 결코 이 기체들만 모일 수 없을 뿐 아니라, 과거의 흔적에도 이들만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다.

실험 조건에 문제가 있다.

실험에서 시도했던 전기 방전은 번갯불을 흉내 낸 것인데, 전기 섬광은 아미노산을 결합시키기도 하지만 분해도 시킨다. 또한 다른 물질들과 마구잡이로 결합시켜 원유의 증류 후에 남는 타르와 같이 쓸모 없게도 만든다. 밀러 역시이를 알았기 때문에 합성된 유기물이 무용지물이 되기 이전에 전기 방전을 그치고 바로 냉각을 시켜버린 것이다. 실험 조건도 자연적 과정을



L 형(왼쪽)과 D 형(오른쪽) 아미노산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설계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얻어진 아미노산도 문제다.

과연 그래서 얻어진 아미노산은 어떤 것이었을까? 실제로 이때 얻어진 아미노산은 결코 생명체로 쓸 수 없는 것이었다. 아미노산이라고 모두 생명체에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아미노산은 2,000여 가진데, 이 중에 생명체에 사용되는 아미노산은 단지 1%인 20개뿐인 것을 아는가? 나머지 99%는 생명체와 관련이 없는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은 편광된 빛을 왼편으로 돌리는 L 형과 오른편으로 돌리는 D 형으로 구분되는데(위 그림), 생명체에 사용되는 아미노산은 모두 L 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D 형이 하나만 들어있어도 생명체로서의 기능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 얻어진 아미노산들은 L 형과 D 형 모두가 함께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아미노산은 생명과 무관한 것이다.

밀러의 실험은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합성했다는 점에서는 과학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험의 재료, 조건, 결과물 모두 생명으로 연결될 수 없는 일종의 화학실험에 불과하다. 과연 이 실험이 생물책에 있어야 할까? 아니면, 화학책에 있어야 할까? 그런데 놀랍게도 생물 기원에 대한 내용으로 생물교과서에 실려있다.

과학자들은 아직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단지 생명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만 알고 있다. 더군다나 생명의 시작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확실히 아는 것이 있는데 생명은 생명에게서 온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관찰과 실험으로 얻어진 100% 결과다.

성경은 생명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시편 36:9). 생명은 생명이 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14:6) 이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시기 때문이다.

- 유기화합물이란 탄소를 기본골격으로 한 화합물을 말하는데, 생물체들은 유기화합물로 되어있다. 그렇다고 유기화합물은 생물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 2)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단위를 말하며, 생물체들은 물을 제 외한 물질의 약 50%가 단백질로 구성되어있으며, 우리 몸도 역시 단백질 로 되어있다. 그러나 본문에 나와있는 것처럼 모든 아미노산이 생물체에 사 용되는 것은 아니다.



<mark>이재만</mark>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ACT News

창조과학탐사여행 / 해외세미나 단기선교 / ITCM / 신학교강의



창조과학탐사여행

한국 연합팀

8월 8-11일 한국에서 연합으로 탐사여행에 참석했습니다. 지구촌교회 중 고등 대학부, 종교교회 중고등부, 익산과 부산에서 어른들이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팀에는 현재 고등학교 과학교사로 생물, 물리, 화학을 가르치

시는 세 분의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연령도 다양한 만큼 질문이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학생들은 진화론에서 벗어나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간증했습니다. 특별히 지구촌교회와 종교교회는 각각 저녁 때 숙소에서 의미 있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어른들은 자신들이 성경의 증거를 확인한 것뿐아니라, 자녀들이 탐사여행을 통해 성경에 확신뿐 아니라 앞으로 계획이 바뀌는 모습도 확인하셨습니다. 참석자들 모두는 앞으로 한국의 모든 연령층이 탐사여행에 참석하였으면하는데 공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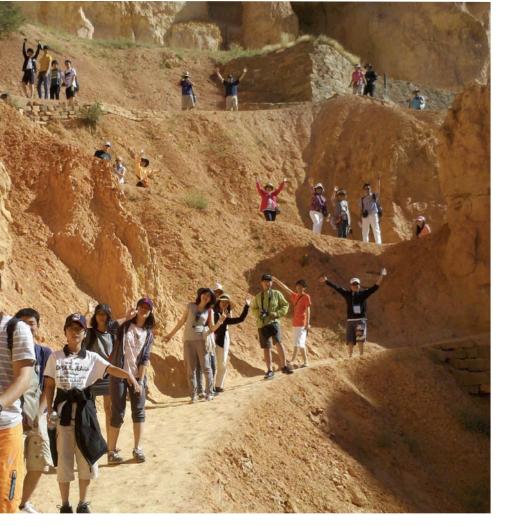
일본 Love Creation 탐사여행

8월 18-13일 지난해에 이어 일본에서 6일 간의 탐사여행에 참석했습니다. 일본 창조 과학 단체인 Love Creation(회장 Sasaki Mitsuo)에서 주축이 되어 모집했습니다. 일 본인 탐사여행으로는 2006년 이래로 벌써 일곱 번째 입니다. 이번 탐사여행은 샌디에 고의 창조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세도나와 서 부 3대 캐년들을 순회하며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랜드캐년에서는 일몰과 일출을 목격 하는 즐거움도 가졌습니다(사진). 2012년부터 는 7박 8일로 연장하여 기존의 스케줄에 Death Valley와 Yosemite의 경유지를 추가하여 빙하시 대 탐사여행까지 연장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역은 나가노 온누리교회 야마구찌 목사님께서, 찬양인도는 권용환목사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일본 Love Creation 탐사여행





샌디에고 탐사여행

LA 사랑의교회(담임목사 김기섭)와 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유진소)의 창조과학 학교학생들을 중심으로 8월 13일 "창조와 지구역사 박물관"과 해안 답사를 하였습니다. 교실에서 강의를 통하여 들은 단편적인 내용들이 한 자리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박물관 관람을 통하여 더욱 생생한 지구 역사를 배우고 그 속에 들어 있는 복음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토리파인 비치에서 노아홍수 때 만들어진 지층과 화석을 눈 앞에서 확인하고 만져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멕시코에서 이동용, 김선욱 박사 사역 현장에서

이재만 부회장 일본/한국 방문

이재만 부회장은 오는 9월 18일부터 동경 요도바시교회 등 여섯 개 교회를 순회하며 세미 나를 인도합니다. 일본에 성경이 사실됨을 알리며, 창조과학 사역이 확대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주세요.

일본에 이어 9월 27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한국 교회 및 단체에서 세미나를 인도하게 됩니다.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웹 페이지의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인도

지난 8월 펜실베니아의 좋은 씨앗교회(담임목사 강남수), 캘리포니아 다솜교회(담임목사 이근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멕시코 뿌에블라 단기 선교

지난 8월 6일부터 12일까지 이동용 박사와 김선욱 박사 팀은 멕시코 시티 동남부 뿌에블라 (Puebla)시의 초중고 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창조과학 강연을 하였습니다. 초 중고 학생들은 창조과학선교회 2세(EM)사역을 전담하는 김선욱 박사, 일반인들은 이동용 박사가 창조과학 DVD영화 상영과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말씀이 사실임을 나눌 때 모두가 놀라고 흥분하였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

다. 강연을 준비해 주신 박성근 김인옥 선교사님 (서울 온누리교회 파송), 지훈이 형제, 그리고 통역으로 수고한 마가렛 교수께 감사드리고, 헌물과 헌금으로 또 기도로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학교 강의

Grace Mission 대학교와 Bethesda Christian 대학교에서 2011년 가을학기 강의가 시작 되었습니다. Grace Mission 대학교는 교단 목회자들과 교수님들이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참석 하여 중요성을 인식한 후에 창조과학 강의가 처음 개설되었습니다. 이재만 부회장과 최우성 박사가 한 팀이 되어 강의가 진행 됩니다. 장래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 영향력을 잘 분별하여 확고한 성경적 창조 위에 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을 듣고 있는 ITCM 참석자들

2011 Summer ITCM 종료

한동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두 달 동안 진행되었던 ITCM(창조사역 집중훈련, 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마감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더욱 훈련되고 준비되어 주님께 쓰임 받는 일군들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육성을 위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후원해 주신 교회와 개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캐나다 Oakville 한인교회 수련회

지난 8월 29-31일 김선욱 박사는 캐나다 옥빌에 있는 옥빌 한인교회 청소년 수련회 및 성인들을 위한 창조과학 세미나를 인도 하였습니다. 창조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도록 도전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믿지 못했던 몇 명의 청년들은 노아홍수가 지구를 완전히 재편한 사건임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 형제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서로 모였고, 두 명의 젊은이가 주님 앞에 돌아 왔으며, 젊은이들이 성인들 집회에 와서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뜨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옥빌 한인교회는 내년 창조과학 탐사여행에 참석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목학과 박목

무화과(無花果)라는 이름의 뜻은 꽃이 없는 과일이란 뜻이다. 하지만 정말로 꽃 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무화과를 열었을 때 안쪽 벽에 연한 홍 색의 수많은 작은 암꽃 과 수꽃이 비대해진 꽃대 주머니 속에 들어 있어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뿐이다. 무화과가 주로 꺾꽂이 방식으로 쉽게 번식 되기는 하지만 씨를 심을 수도 있다고 한 다. 무화과 나무의 영어 이름은 fig (학명, Ficus carica)로 뽕나무과에 속한다. (뽕나무 의 열매인 오디도 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무화과 나무 잎은 세 갈래 혹은 다섯 갈 래인데 길이가 25 cm 너비는 18 cm나 되어 아담과 하와가 치부를 가리는 데 사용하 기도 하였다

이 무화과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식물 이름이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 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렸다. 그런데 이 성경 기록에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마치 기독교가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설화 정도로 생각하는 듯 하다.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는 다 른 성경에 적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실이듯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역사가 사 실임을 증거하는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 가까이 살고 있 는 중국 사람들의 글자(한자)들이다.

그 글자들 중에 무화과 나무와 상관이 있는 나(裸)자가 있다 옷을 벗었다는 뜻인

데 옷 의(衣) 변에 과실 과(果)로 이루어져 있다. 성경 역사를 모른다면 왜 옷을 벗었다는 이 글 자에 나무 열매(果)를 동원했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한자는 글자 속에 뜻이 담겨 있는 뜻 글자다. 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때와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시기(BC 2200년 경)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담부터 홍수 심판까지 모든 사 실을 알고 있었던 노아로부터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 후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중 국 땅에 이주하여 한자를 만들었을 것이다. 실제로 한자에는 창조에서 시작하여 바벨탑 사건 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수 백 글자의 한자가 있다. 이 글자들은 이미 책으로 출판 되었고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 미션하우스) 더욱 상세하게 고증되었다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첫세기 이야기 도서춬판 예햣) 벗을 나(裸)자는 바로 이런 역사 속에서 만들어 졌을 것이다.

이 밖에도, 타락과 연관된 한자들로는 금할 금(禁)자가 있다. 나무 두 그루와 볼 시(示)로 되 어 있다. 나무 두 그루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생각 된 다. 눈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示)은 타락한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고 영원히 살 것이 염려 되어 화염검을 가진 천사에게 그 길을 지켜 사람들이 동산에 들어가지 못 하도록 금(禁)하셨다. 시(示)자가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근거는 示가 들어 있는 신(神). 예배(禮 拜), 제사(祭祀), 기도(祈禱) 등 아주 많은 글자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있다.

무화과 나무가 이야기 해 주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 즉. 온전했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역했던 사건의 영향력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저주 받은 이 세상에는 노화와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지배하고 있다. 노화는 모든 물질 세계의 예외 없는 법칙으로 과학자들은 열역학 제 2 법칙이라고 부른다. 이 법칙에 의하면 모든 것은 시간이 지 날수록 점점 더 무질서해 진다. 역으로 생각하면 과거에는 더욱 질서가 잡혀 있던 좋았던. 심히 좋았던 때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법칙에 따르면 고도로 질서가 잡혀 있는 생명체도 언 젠가는 그 원소들이 흩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픔과 고통이 동반될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 을 것이다.

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온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저주로 무화과 나무가 죽고 말았다. 이런 기적의 사실성에 대 해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므 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제한 받지 않으시는) 창조주란 사실(요한복음 1:3; 골로새서 1:16)을 안다면 그런 의심과 더불어 성경의 기적들에 대한 의심은 쉽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 어떤 사람이나 사람들이 만든 종교나 과학 의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창조 된 모든 것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죽음의 법칙인 열역학 제 2 법칙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직 물질과 이 법칙을 창조하셔서 이 물질세계와 법칙에 매이지 않는 창조자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

실 수 있다. 이 창조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 고 숨어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신 참 사랑의 구속자이시다. 이 분이 가슴 속에 살아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내가 주인된 세계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는가? 대 개 자신의 신분과 재산을 포기하고 평민과 결혼하기로 한 왕족의 이야기, 엄격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 을 택하는 연인들의 이야기, 떨어져 있어도 오랜 세월 변 치 않다가 극적으로 다시 만난 연인들의 이야기 등을 떠 올린다. 여기서 우리는 "낭만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 는지 감을 잡을 수 있다. 그것은 다소 어려운 말로 "인습 의 타파" "물질의 배격과 숭고함의 추구" "영원성 혹은 초 월성" 이런 것들이다. 그러나 더 깊은 배경에는 바로 "나 만의 선택"이라는 가치 기준이 있다. 남이 뭐라고 하든. 환경이 어떻든 바로 "내"가 그를 사랑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과연 이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

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근대 유럽인들은 인간의 이성을 믿었다. 우리가 아는 계몽주의 운동이 바로 인간의 이성으로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믿 음에 근거해 있다.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 더 나은 헌법과 법률을 제정할 수 있 고.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종교와 같은 미신을 타 파할 수 있고 등등, 그러나 18세기 말 유럽이 피흘리는 혁명에 휩싸이면서 이런 이성에 대한 신념은 상당 부분 무너지게 되었다. 좋은 사회가 될 줄 알았는데 혼란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이성이 답을 줄 줄 알았는데 그 누구도 답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낭만주의가 퍼져 나갔다. 과거의 귀족제도, 교회 등은 권위를 상실하고, 미래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점점 개개인이 자신의 삶과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수많 은 젊은 베르테르들이 대답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유없는 반항" 의 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기존의 제도나 사상이 답을 주지 못했던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당시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신흥 계급인 부르주아의 자유분

방함도 낭만주의적 사조의 전파에 일조했다. 그들은 기존 귀족들의 권위나 관습을 따르기 를 거부했다. 그들은 그들이 일구어낸 물질적 풍요의 결과들을 보다 자유롭게 누리기를 워 했으며 기존의 사회제도에 답답함을 느끼고 그것을 깨고자 했다. 그것이 결국 혁명으로 나 타났던 것이다.

불행히도 이 시기에 교회 역시 답을 주지 못했던 것 같다. 교회도 어느 새 "기존의 제도" 중 하나가 되어버렸고,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사상적 경향 속에서 신본주의적이고 절대자 만을 강조하는 정통주의 신학은 힘을 잃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자유주의 신학의 등장은 교회가 답을 제시하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교회가 답을 줄 수 있는 힘은 성경인데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궁극적 권위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 결과 신앙 역시 하나 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결단 의 문제가 되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과정이 되었다. 이 시기 이후 성경은 절대적 진리의 책으로부터 "내가 믿어야 하는" "내가 믿기로 하고 읽는" 책이 된 것이다. 급기야 어떤 철학자(포이어바흐)는 신은 인간의 창조물이라고 선언했다. 물론 이 런 생각은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시대에 진리의 중심 추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낭만주의가 낭만주의인 것은 그래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내 안에 무언가가 있다고 믿을 수 있을만큼 인간의 본질에 대한 낙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답을 발견할 수 없다 면. 내 내면으로 깊이 침잠해 들어가면 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수 순이다. 사실 동양에서는 이미 불교가 그런 가르침을 오랜 세월동안 전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서구의 철학자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 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대로 인간의 본질을 깊이 파들어가면 우리는 결국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낭만주의는 곧바로 사실주의-인간이 뭐데?-의 비판을 받게 된다.

이 글에서 우리는 18세기부터 19세기의 서구 사상의 변화를 간략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먼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 시 대에 뿌려진 "나" 중심의 사고의 씨앗은 오늘날까지 우리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는 저 마다 "나만의 예수" "내가 빚어낸 예수" "내가 믿기로 한 예수"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이상 절대적 진리가 아닌 성경책에서 그나마 "내"가 믿을만한 구절들을 골라서 "내"가 그 려낸 창조. "내"가 그려낸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은 아닌가. 우린 성경을 믿음에 있어 너무 낭만적인 것은 아닌가.

진리는 일견 답답해 보일 수 있다. 우린 좀더 자유로운 믿음을 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근저에 어떤 사고가 있는지 한번쯤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가 자유로운 믿음을 원할 때. 우 리는 우리도 모르게 나 자신을 진리의 근거로 삼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에덴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말했던 것은 아닌가 (창세기 3:5). 예수님은 진 리의 멍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1:30). 그리고 진정 진리 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8:32)



최태현 박사 행정학

Fuller 1/3+14 Etatonity

6/20 - 6/22/2011

좀더 일찍이 탐사여행에 왔으면, 공부할때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창조과학세미나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고 "보수근본주의자들" 이라는 약간의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무엇을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소중한시간이었습니다. – 홍경헌 목사 / ANC 온누리 교회

참여하기 전과 후에 성경 보는 시각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경…! 맞는것도 있고 오류도 있을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 성경은 확실한 사실. 한획도 틀리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황수 / Fuller

목사로서 분명한 하나님의 천지창조나 구원의 진리를 확신과 분명하게 전해야 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ANC온누리 교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오묘하심에 다시 감사 와 영광을 들립니다. – 김상대 목사 / Fuller / 은혜한인교회

먼저 창조과학회와 ANC 온누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여행중 노아홍수, 화석에 대한 강의는 많은 유익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창조의 세계는 경이로울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 Fuller 은혜한인교회

눈의 눈꺼풀이 떨어지는 경험이었다. 의심과 불확신, 그리고 무지의 껍질이… 이제도 눈에 보이는 산과 바다, 세상이, 그리고 성경이 예전의 것들이 아니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더욱 가까이 다가온다. - 조종환 목사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을 느끼는 또다른 체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이시며 사실이었던 성경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을 꼭 탐사여 행에 보내고 싶습니다. – 김규성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시간이었고 성경의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명한 사실과 확신을 갖게 되는 생명의 시간이었다. 성경안에 있는 사실들을 눈으로, 마음으로 관찰하고 바라보며 생각케 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이 세미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다. — 차권희 목사 / 삼성교회

성경과 이 땅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여행을 시작으로 더 크게 눈을 뜨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위에 더 단단한 믿음을, 은혜위에 더 큰 은혜를 부 어주시길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승기선

창조과학이 성경을 말한다는 것을 보았을때 참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 다. 기도…사랑…영혼들을 향한 복음… 이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 알리는데 힘쓰겠습니다. ー강진기 / Ellit Media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거듭 참여할수록 '무엇을 믿는가'의 믿음의 내용에 대한 중요한 기 준을 세워주는 사역임을 확신합니다. 성경이 사실이고,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참과 거짓을 성경대로 분별하고 진리를 잘 가르치 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마음에 품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일깨워 주시고, 선한 사 역의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ANC 온누리교회에 큰 감사를 드립 니다. *- 노휘성*

이번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오래참으심을 더욱 깨 닫게 됩니다. 'Back to the Basic' 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진리에 더욱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만 선교사님, 사역위에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을 기도합니 다. 힘드심에도 열정적인 강의와 나눔, 큰 도전을 받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허진필 & 허영 순

막혔던 질문의 답들이 열리는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지음받은 모든것들 이 성경안에서 모든 질문의 답을 찾는 순간순간… 짜릿한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뭉텅거리며 믿었던. 하지만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왜? 라는 질문이 솟아오를때 쯤이면 '의심말고 민자'라는 답으로 덮었던 것들이 이 여행으로 통해 막혔던 담이 와르르 무 너지는듯 했습니다. 귀한 사역을 제공하신 ANC 온누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박혜진

단수하게 하나의 여행에 대한 추억을 추가하는 정도로 생각했던 3일의 기간이 창조과학 과 성경의 사건에 대한 체험과 확신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갑니다. 다음 언젠가는 이 사랑을 다른분들께 갚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백

2박3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강의에 감사합니 다. 시간이 갈수록 과학이 발전할 수록 이같은 창조의 사실이 성경의 말씀대로 더 구체적 으로 확인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의 감격을….. 귀한 사역에도 하나님 의 크신 은혜와 섭리를 함께하셔서 하나님께서 더욱 사용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정*추 섭

●편집되지 않은 더 많은 간증은 웹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역일정 SCHEDULE

2011년 ACT Schedule

10/13-15 10/15 10/16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LA, CA 행복한 교회(이재만), 한국 전주대학교(이재만), 한국 한동대학교(이재만), 한국 서울 장신대학교(이재만), 한국 두란노 수련회 (이재만), 한국 ANC 온누리교회 모세회 (최우성), CA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LA, CA LA 온누리교회(노휘성), LA, CA 서울 지구촌교회(이재만), 한국 전주대학교(이재만), 한국 온누리교회 CEO 스쿨(이재만) 한동대학교(이재만), 한국 창조과학 탐사여행 (GMU, 213-381-1390), (최우성) 온누리 중국인(이재만), 한국 서울 드림교회(이재만), 한국
10/21-23 10/22	온누리교회 양지 선교센터(이재만), 한국 체리힐 장로교회 (이재만), PA 샌디에고 탐사여행 베데스다 U. & GMU(최우성)
11/4-6 11/7-11 11/13 11/14-16	뉴저지 초대교회 (이재만), NJ 산호세 새소망 교회 (이재만), San Jose, CA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두란노 모집) LA 온누리교회 (최우성), LA, CA 창조과학 탐사여행 (남가주 교역자 협의회) 창조과학 탐사여행 (베다니장로교회) 로뎀 교회 (이재만), Anaheim, CA

- 12/2-4 하와이 벧엘 침례교회 (이재만), Hawaii 12/9-11 오레곤 에덴장로교회 (이재만), OR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v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I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43 W Olympic Blvd #300, Los Angeles, CA 90015 Tel, 213-381-1390 Fax 213-381-9242 www.HisArk.com / hisark@gmail.com